



광주 북부경찰 두암지구대, 합동 야간 순찰

광주 북부경찰 두암지구대는 지난 20일 두암 1·3동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와 함께 관내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에서 합동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두암지구대, 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기동경찰순찰대, 자율방범대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 순찰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가지역, 아파트,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간 음주 소란 및 무질서 행위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고 보이스피싱 예방 및 ‘노쇼 범죄’ 관련해 상가 업주 등을 상대로 전단지 배포하는 등의 예방 활동을 펼쳤다.

김진태 두암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순찰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암환자 통증 캠페인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병원 1층에서 ‘암성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를 주제로 2025년 통증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병원을 찾은 내원객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21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암성통증이 단순한 불편이 아닌 치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환자 스스로 통증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암성통증에 대한 인식개선 △통증관리 교육 안내 △암성통증 상담 부스 운영 △환자용 통증 조절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광주기독병원, 순천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광주·전남·제주 지역 호스피스전문기관에 홍보 물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통증관리 인식 확산을 도모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순천대, 취·창업 중심 상생협약체

전라남도도와 순천대학교는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중심 지역발전 상생 협약체제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남도가 발굴한 협의의 안전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남 벤처·창업 박람회 개최 △전남형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전남 콘텐츠 페어, 4건을 논의하고 향후 사업 참여 등에 협력기로 했다.

협력 과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추진 사항이나 문제점, 결과 등을 공유한다. 오지현 기자



초록우산 전남본부, ‘오월의 산타가 간다’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스타테크 사업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오월의 산타가 간다’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오월의 산타가 간다’는 ㈜스타테크가 후원한 1000만원의 기부금을 통해 준비된 선물을 여수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 100명에게 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균 ㈜스타테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6명,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 직원 7명,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6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인사말 △감사인사 △후원금 전달 및 대표 산타 선선 △산타 선물 포장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선물 100개를 팀별로 협력해 포장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의회 환복위, 금호타이어 화재현장 방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1일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제2공장 현장을 방문해, 화재 이후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환경영향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 진압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복위는 화재 전후 대기오염도 변화, 유해물질 유출 여부, 인근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현장 방문 이후에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 화재로 인한 장기적 환경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지현 환복위원장은 “진화 완료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환경 피해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북부소방, 직장훈련 영상 콘테스트 ‘작품상’

광주 북부소방은 소방청에서 개최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영상 콘테스트’에서 광주 북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콘테스트에는 전국 14개 시·도에 있는 53개 소방서에서 355명이 참여해 총 59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영상 추천수(50%)와 평가위원회(50%)를 합산해 총 4개의 우수작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은 북부소방서 119구조대의 효과적인 직장훈련 방식을 △Think(생각) △Speak(소통) △Act(행동) △Master(반복숙달&완성)의 4단계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의 합합 뮤직비디오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은 창의적인 구성과 높은 완성도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정승우 기자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제265회 산학협동포럼 개최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 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은 21일 오전 7시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 12층에서 회원 및 광주전남지역 학계·기관·단체 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회 산학협동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포럼에서는 선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을 초청해 ‘미래를 위한 AI 융복합 신산업 허브, 여기는 광주경제자유구역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소영 기자



조선대, 한국기계공학학회 학술대회서 우수상·혁신상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들이 ‘2025 한국기계공학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캡스톤 디자인 및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혁신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전공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입증했다. (사진)

지난 8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025학년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 중인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3개 팀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통합형 IC-PBL 기반 수업을 통해 도출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각 팀들은 우수상 1건, 혁신상 2건을 수상했다.

서재영, 박준영, 최우혁, 양강모, 최휘원 학생은 ‘고출력 레이저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셀 완충재 및 배열 설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박강민, 조운, 김종선, 임종민, 정보민, 임태건 학생은 ‘압축식 냉동기를 이용한 고출력 레이저의 에너지 저장 장치 냉각’ 주제로, 김가운, 류도경, 김은희, 박현민, 김동규 학생은 ‘고에너지 레이저의 ESS 발열 및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 최적화’ 주제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하태광지도교수(기계공학과)는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제해결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경합이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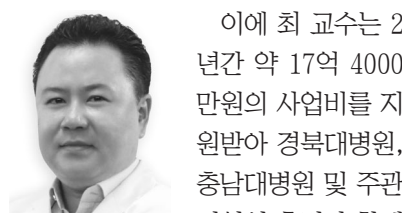
전남대병원 최강호 교수, 국가 연구사업 잇달아 선정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최강호(사진) 교수가 국가 연구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선정돼 서울아산병원, 고려대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최 교수는 이번 국가 지원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해 뇌졸중에서 환자중심의 최적의 보건의료 기술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최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뇌경색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 뇌졸중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도 잇달아 선정됐다.



이에 최 교수는 2년간 약 1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및 주관 기업인 휴런과 함께

식약처 허가를 받은 뇌졸중 정밀의료 AI솔루션 서비스를 보급하고 실증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이번 디지털 혁신 기술을 공공의료기관에 도입해 의료·건강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AI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전남대병원은 추후 건립될 새병원인 ‘뉴 스마트병원’으로 나아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을 통해 환자중심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새로운 AI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AI 기술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